

주임신부: 김종광 요한사도 925-519-8471 **사목회장:**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총구역장: 박찬호 바실리오 408-708-8567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2020년 4월 26일(제426호)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미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제1독서_손영채(아녜스) 제2독서_손영채(아녜스)

입 당 송 | 시편 66(65),1-2

부활 제3주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4.22 L -33 Acts 2:14, 22-33 화 답 송 | 시편 16(15),1-2 ¬과 5.7-8.9-10.11(◎ 11 ¬ 참조) Psalms 16:1-2, 5, 7-8, 9-10, 11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O Lord, you will show us the path of life. or: R. Alleluia.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Keep m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I say to the LORD, "My Lord are you." O LORD, my allotted portion and my cup, you it is who hold fast my lot.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I bless the LORD who counsels me; even in the night my heart exhorts me. I set the LORD ever before me; with him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disturbed.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soul rejoices, my body, too, abides in confidence;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the netherworld, nor will you suffer your faithful one to undergo corruption. ⑤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 You will show me the path to life, abounding joy in your presence, the delights at your right hand forever. ◎

제 2독 서 | 1베드 1,17-21 First Peter 1:17-21 복음환호송 | 루카 24,32 참조 Luke 24:32

- ◎ 알렐루야.
- O Alleluia, alleluia.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bigcirc Lord Jesus, open the Scriptures to us; make our hearts burn while you speak to us. \bigcirc

복 음 | 루카 24,13-35 Luke 24:13-35

영성체송 | 루카 24,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주 남당신은저 에 게 생명의길 - 을 가르치시나이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한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필순 루시아, 고온경 엘리사벳, 이순옥 마리아

r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가 중단 되었고, 우리네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 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돌 아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활 제3주일 복음은 루카 24,13-3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주간 첫날, '클레오파스'(루카 24,18)라는 제자와 익 명의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다고 복음서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스타디온은 185m로 60스타디온은 약 11km입니다. 성인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5km 정도인데,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지리적·기후적 여건을 고려하면 1시간에 3km 남짓 걸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야기 속 두 제자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 로 절망과 고통 속에서 3시간가량을 터덜터덜 걷고 있 습니다. 망연자실하여 걷는 두 제자의 여정에 동반하는 이가 있지만, 그들은 그 동반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쪽으로 해가 질 무렵이라 동반자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근심이 깊었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확실한 내용은 그 동반자가 두 제자의 여정 중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루카 24,27)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속 예언들을 풀어 설명해 주는 동반자입니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어 그 동반자는 두 제자와 함께 밤을 묵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과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

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루카 24,30)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고 떼어 나누는 행위는 최후의 만찬 때 열두 제자에게 명하셨던 예수님의 성찬례, 즉 성체성사인 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 24,31)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그리고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두 제자는 고통의 여정 중에 자신들을 동반해 준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 속 익명의 제자와 동일시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지난 시간의 고통과 절망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들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일상으로돌아옴은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고통과 절망 앞에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여러분은지금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WW KELLERWILLIAMS | DRE 02049482 925.416.9249 julia.kim@kw.com

... MassMutua

건강보험, 생명보험, IRA 연금(Retirement Account) 장기 간호보험 40,1(k) Roppover **허 세실리아** 925-642-0756

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



ri-Valley Orthodonl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

베스텍 오토

BESTECH Auto Repair & SMOG 전차종 정비 & 스모그

2400 San Ramon Valley Blvd, San Ramon, CA 94583 925-362-0172

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



54. 묵상이란 무엇인가?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묵상은 하느님 또는 신앙의 어떤 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신앙심 깊은 성찰과 숙고를 하 는 것이다. 또 하느님 안에서 신앙의 빛으로 체험한 것을 깊이 통찰하는 영적기도이다.

성경 구절이나 영적 저술의 일부분, 예수님의 생애 중의 한 장면, 다양한 성덕,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삶의 어떤 사건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된다. 묵상에서 우리는 기억과 상상력, 사고력을 사용하게 된다.

The Liturgy of the Eucharist

At the Last Supper Christ instituted the Paschal Sacrifice and banquet, by which the Sacrifice of the Cross is continuously made present in the Church whenever the Priest, representing Christ the Lord, carries out what the Lord himself did and handed over to his disciples to be done in his memory.

For Christ took the bread and the chalice, gave thanks, broke the bread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eat and drink: this is my Body; this is the chalice of my Blood. Do this in memory of me. Hence, the Church has arranged the entire celebration of the Liturgy of the Eucharist in parts corresponding to precisely these words and actions of Christ, namely:

- a) At the Preparation of the Gifts, bread and wine with water are brought to the altar, the same elements, that is to say, which Christ took into his hands.
- b) In the Eucharistic Prayer, thanks is given to God for the whole work of salvation, and the offerings become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 c) Through the fraction and through Communion, the faithful, though many, receive from the one bread the Lord's Body and from the one chalice the Lord's Blood in the same way that the Apostles received them from the hands of Christ himself.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괏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 첫영성체 및 세례식 안내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활대축일에 이루어지지 못한 세례식과 5월 10일 예정이었던 첫영성체는 5월 31일 이후 교구 및 카운티의 지침에 의거 모임이 가능한 시점에 일정을 다시 잡아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평일 온라인 미사 안내

- 주 3회 : 화, 수, 목

- 시간: 오전 9시 30분

■미사 중단 기간 중 헌금 안내

-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3월 31일자 이메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liturgy@gmail.com
- 봉헌금: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
- 신청 시 기재사항은 각반 연락망을 통하여 공지되었습니다.

■ 미사참례를 못하실 경우 '대송'으로 미사참례를 대신합니다.

- 1. 방송(온라인, TV, 라디오)미사에 참여합니다.
- 2.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에 따르며 '신령성체 기도'를 바칩니다.
- 3.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조차 어렵다면 묵주기도와 성경 읽기(그날의 독서와 복음)로 대신합니다.
- *기도문 등 참고 자료는 3월 14일자 이메일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일시 중단 Sunday Class Suspended

- 기간: 추후 통지시까지 Until Further Notice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1,795	-	-	\$3,000	\$180	\$180	\$5,155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4), 김순삼(4), 박용보(2,3), 정종락(3,4), 조희진(3,4), 채성우(4), 최교운(4), 하성곤(1-4), 함종식(4,5)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4), 채성우(4), 최교운(4), 하성곤(1-4), 함종식(4,5)

- Bishop's Appeal

김성치(4), 채성우(4), 최교운(4), 하성곤(1-4), 함종식(4,5)

- 성전건축 헌금(Building Fund)

조명증

- 제대초 봉헌: 권현정, 원동기

-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30분 오전 9시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